

2020 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화]시리즈 강좌(2)

주제: 방역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경제 발전과 대만-일본 간 협력 추세

강사: 웨이충저(魏聰哲) 교수(중화경제연구원)

제2회 유라시아 재단 국제 심포지엄을 맞이하여 중화경제연구원 웨이충저(魏聰哲) 교수를 본교 강연회에 모시게 되었다. 웨이 교수는 시작에 앞서 중화경제연구원에 대해 소개하였다. 동 연구원은 1981년 정부 투자 90%, 민간 자본 10%로 설립되었으며 연구 및 관련 분야의 교류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정부에 조언을 하는 등 정부 경제정책의 Think Tank라 할 수 있다. 중화경제연구원은 세 연구소(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대륙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 ‘대만경제연구소’이다. 웨이 교수는 제 3연구소인 ‘대만경제연구소’에 속해 있으며, 이곳은 대만 국내경제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대만-일본 간 과학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웨이 교수는 전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19”의 현황 보고에서 당초 6월이 되면 많은 국가들이 봉쇄했던 문을 열 것이며 감염 추세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추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면서, 특히 미국은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일본 역시 초기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 이후 방역에 힘쓰고 있다. 대만은 WHO 비회원이나 확진율이 매우 낮아 방역성공 국가에 속한다고 밝혔다. 웨이 교수는 향후 코로나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방역을 생활화하고 과학기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후지산 형)은 중앙집권적 국가로 초기에 매우 심각했던 기간을 거쳐 강력한 도시봉쇄를 통해 경제가 잠시 하락세였다가 현재 회복세로 돌아섰다. 다음으로 유럽과 미주 국가들은 사태 초기에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병이 있어야만 마스크를 쓴다는 인식으로 인해 초기 방역이 습관화되지 못하여 전면적인 확산을 불러 일으켰다. 세 번째 유형은 개발도상국 위주의 국가(유도탄형)들로 멕시코나 인도는 방역 관념의 부재로 일단 발생하면 유도탄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경우이다.

웨이 교수는 이어서 전 세계 경제발전 추세를 다섯 가지 단계로 보았다. 제1단계(2007~2008)는 전 세계 금융 위기 및 레이먼 브라더스 도산으로 인해 미국은 화폐 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금융권의 통합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하였다. 제2단계(2009~2012)는 재정 확장으로 인해 EU 설립 이후 최대 채무 위기가 발생하였고, 제3단계(2013~2016)는 신흥 국가에 중국지역 채무와 유사한 채무 문제가 발생하였고, 제4단계(2017~2018)는 미-중 무역전쟁 발생 전 QE(양적완화)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을 보였으며, 제5단계(2018~2020)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양대 경제체제의 무한경쟁 지속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쳤고 2019년말 코로나 사태로 미-중 무역전쟁이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었다. 세계 경제 정세를 예측컨대 2020년부터 2021년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대만, 베트남, 중국만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는 재해, 금융위기, 전염병 세 종류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동일본 311지진은 생산 설비의 파손 등 공급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손해가 심각하였으나 재건 속도도 매우 빨랐다. 또한 2018년 미국의 모기지 프라임 때와 같이 금융위기는 수요면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역시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세 번째 종류인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 전염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람 간의 접촉이 금지되어 공급면과 수요면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전염병이 종료되어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접촉이 제한되는 관계로 Food panda, Uber eat 등 모바일 배송 서비스 소비가 성장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과 방역기술의 응용과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 공유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의 수집 관리 형태가 다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독점하는 형태이며, 미국은 민간 대기업이 주도하고, 일본은 정부와 민간의 합작 형태로 수집되고 있다. 셋째, 공급망의 단절과 복구이다. 넷째,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과학 기술 전쟁, 제도 정책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대만의 경제 정책은 미시적 경제 관점과 거시적 경제 관점으로 양분되어 진행하고 있다. 미시적 경제이론의 정책은 지금도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의 사재기 문제는 국가 정책 차원의 마스크 사재기 문제 관리와 소비 장려 정책 등으로 해결한 것이 이에 속한다. 거시적 경제이론과 관점은 국가의 GDP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진흥권(振興券) 발행이나 기업 보조금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웨이 교수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구제 정책, 미-중 무역전쟁의 대응,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진흥 정책, 동경 올림픽 개최 연기의 영향 등 최근 일본의 주요 의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번역: 이현주(李炫周)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